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2007세계곤충체험학습전'

## 어른들은 추억 담고, 아이들은 지식 쌓고



####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부천시 북사골문화센터에서는

'탈춤무용극 미얄 할림이 들려주는 우리 춤 이야기'가 펼쳐진다. 1부는 전통춤으로 관객들에게 한국춤의 멋과 흥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춤에 대한 아름다움을, 2부는 해설탈춤에 등장하는 미얄과장을 극대화하여 현대적인 무대에 어우러진 극장적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전통을 재해석했다. 8월 19일까지. (032)320-6334

##### 충북 진천 화랑관에서는

8월 18일 11시와 15시 어린이인형극 '손오공과 우마왕'이 무료 공연된다. 이 공연은 '서유기'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을 인형극화 시킨 것으로 방대한 스케일과 개성 넘치는 개개의 인물들이 돋보인다. 문의 서울인형극회. (02)539-3791

##### 전남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2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몸, 빛, 소리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대한민국, 러시아, 독일 등 7개국 참가해 총 17편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고, 8개국 10여 편이 별도로 광주시 일원에서 공연된다. (062)521-3223

##### 경남 양산 양주공원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고, 청소년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를 열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청소년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소년 락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8월 15일이며 대한민국 응원메시지 전달하기, 광복절 퀴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진구립예술단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25일 2시와 5시에 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02)447-024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세계곤충체험학습전에서 직접 곤충을 만져보는 아이들.

### 나뭇잎대벌레 등 외국 곤충 전시 끝나면 보기 힘들어 설명 들으며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체험 시간도 마련

"곤충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도 물도 공기도 좋은 강원도 화천군에는 곤충들도 많다. 곤충들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화천군에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곤충잔치'를 서울·대구·전주에서 동시에 열었다. 그럼 곤충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지는? 물론이다. 거기다 실제 곤충을 접하고 만져보기까지 할 수 있다. 곤충잔치의 이름은 '2007 세계곤충체험학습전(이하 곤충체험전)'이다.

사실 대도시에는 곤충들이 살만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은 곤충을 무서워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청소년들은 곤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 곤충체험전에서 어린이들에게 곤충에 대해 설명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다. "여러분,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이에 어느 어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거미는요, 다리가 여덟 개예요. 또 머리가 스펀지로 나눌 수 있어야 곤충인데 거미는 머리랑 몸만 있어요."

이 어린이의 설명처럼 신체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다리가 3쌍이며, 더듬이가 있는 생물을 우리는 '곤충'이라 부른다.

체험전을 우선 둘러보자. 장수하늘소·노랑나비·풍뎠이 등이 얼른 눈에 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곤충들이니까. 그렇다면 나뭇잎대벌레·귀신폏무지·헤라클레스왕장수풍뎠이·벨리코시광사슴벌레 등은 어떤가. 어떤 아이들은 이들을 보고 놀란다.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곤충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곤충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녀석들도 무척 많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곤충체험전을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중 그 실물을 볼 수 있는 나뭇잎대벌레, 정말 귀엽게 생겼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영락없이 진짜 나뭇잎 같다. 보호색이라고는 하지만 잎맥과 줄기까지 갖춰져 있어 무엇이 나뭇잎인지 무엇이 곤충인지 얼른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나뭇잎대벌레는요, 구아바 잎을 먹고 살아요. 태어나서 맨 처음 먹은 나뭇잎 색에 따라 몸 색깔이 정해진답니다."

이밖에도 신기한 곤충과 나비들, 박쥐·구렁이·이구아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바로 곤충체험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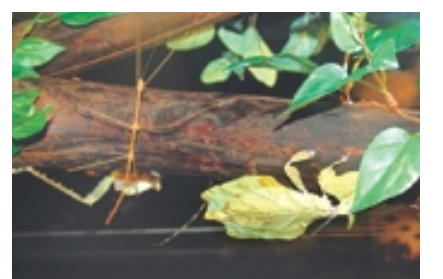
곤충체험전 전시엔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어떤 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곤충들이 들어왔다"면서 "외국 곤충들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시 기간이 끝나면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냥 표본만 보고 지나간다면 의미 없는 전시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한 설명을 들으시고 곤충을 직접 만져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훨씬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곤충체험전을 다 보고 난 후 어떤 아이들이 묻는다.

"곤충 이름 같은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름들이고, 사실 공부하는 데도 지장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나뭇잎대벌레'는 잎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자연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존재기 때문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것만이 아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어우러질 때, 인간도 가치 있다.

이번 전시는 네 군데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 내 민속박물관,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과 대구 엑스코,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바로 그곳. 전시 기간은 8월 24일까지. 곤충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얼른 달려가 보자. (02)501-9388, www.bugspos.com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 ■ 따라해 보세요 사슴벌레 키우기

#### 〈준비물〉 사슴벌레 애벌레, 사육통, 발효톱밥

1. 플라스틱 재질의 사육통을 마련해요.
  2. 사육통에 물기를 충분히 머금은 발효톱밥을 15센티미터 이상 채워요.
  3. 사육통 정 가운데에 애벌레를 넣을 구멍을 만들어요.
  4. 애벌레를 구멍 속에 살짝 집어넣고 잘 움직이지 않게 살펴봐요.
  5. 뚜껑을 닫고 숨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줘요.
- 사육통은 그늘진 곳에 놓아둬요.  
주의: 애벌레를 키우는 동안 3일에 1번씩 톱밥에 물을 뿌려주세요.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시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